

## [이사야]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리라

[본문: 이사야 41:17~20]

하용조 목사/ 2000/ 페이지 수: 5

성경에 보면 시련,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과 다른 뜻으로 시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과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test)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거품이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많아서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 시련의 목적

이 시련과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의 한 방법이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을 만드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기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던져졌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것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시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시련과 시험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봅니다. ‘가련하고 궁핍한자가 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가련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필수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시련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련은 참 묘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자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은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 6:34)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사십시오. 그렇게 매일 매일 승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자라면 보금자리의 짙을 다 빼내고 뼈대만 남깁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의 몸이 가시에 찢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하늘에서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도 자기도 해보겠다며 보금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줄을 모르기에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쳐서 끌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위에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호위하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오늘 본문에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응답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시험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의 언어까지도 들으십니다. 꼭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며 절망했습니다. 포로생활에 지치고 지쳤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데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하소연합니다.

## 마른 땅에 샘이 흐르리라

18절입니다.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산’이라는 말은 벌거벗어 메마른 산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18절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생각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 끝날 무렵 우리 교인들과 함께 카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카불공항에는 아프가니스탄 비행기는 없고 유엔 소속 비행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위험하게 폭격기처럼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보니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도로와 집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자들은 차도를 쓰고 여기저기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폭탄이 터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최근 지진으로 폐허가 된 파키스탄의 국경 산악지대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는 산에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주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땅으로 샘의 근원을 만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집한 채 성한 곳이 없이 다 무너져가는 죽음의 장송곡만이 계속되는 그곳에 환희와 기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해방이후 6.25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기막힌 나라로 변했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속안 부총리와 경제담당각료들과 오찬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코리아가 우리의 모델이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본은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도 겪었고 공산주의도 겪었는데 올림픽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나라이고 공산주의를 겪었던 나라지만 기독교라도 좋으니 와서 우리나라를 살려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복음만 들어간다면 50여년 만에 기가 막힌 나라가 되겠구나!’ 이것이 18절의 비전입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딤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는 환경을 바꾸시고 19절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서는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바뀌고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 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그 변한 땅에는 온갖 싱싱하고 울창한 나무와 숲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물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을 열며, 샘이 나게 하며, 샘물의 근원이 되며’라는 표현입니다. 황무지에서 사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으겠습니까? 이사야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19절은 축복의 내용인데 나무의 종류가 백향목, 싯딤나무, 화석류, 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등 7가지나 됩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폐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막에서, 절망에서, 벌거벗은 산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가진 사람이 파키스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야 하고 북한에 들어가야 합니다. 폐허더미를 짧은 시간 안에 환상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직후에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프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6.25직후와 똑같았습니다. 전쟁으로 젊은이는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정부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장관과 국장급 경제 각료들과 교육 복지의 모든 분들을 20여 명 단위로 10번을 초청했습니다. 200여 명이 한국을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어느 장로님댁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없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나무하나 심으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직후 온 산이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금은 푸른 산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원조를 받으면 아이들의 교육에 쓰라고 했습니다. 셋째, 여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경제기획담당 차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포항제철도 보고, 삼성도 보고 관광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그램 때문에 펜타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70세의 닥터 하프만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그랬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니 온통 나무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이고 정부이고 할 것 없이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별거송이 아프가니스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돌아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아프간의 별거벗은 산에 푸른나무가 뿅뿅하고, 강이 흐르고, 샘의 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20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건강과 돈과 열정을 합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환상을 신뢰하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건강, 능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김사무엘목사님께서 이라크에서 순교하신 것이 한 개인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건일지 몰라도, 이것은 엄청난 비전을 심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라크는 변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변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굶주리고 있는, 에이즈에 걸려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적을 볼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축복의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서 뛰어가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에게 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환상과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 누 리 신 문